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Quick NEWS

01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 내시경 클리닉 OPEN

아이가 **구스를 삼켰어요!**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오세요!
소아응급내시경이 가능합니다.

소아청소년 내시경 적응증

- ✓ 반복적인 복통이 만성적으로 지속
- ✓ 토혈, 흑색변, 선혈변 등 위장관 출혈 의심
- ✓ 만성적인 설사
- ✓ 원인을 알 수 없는 구토가 반복적으로 발생
- ✓ 저체중, 체중감소, 영양장애가 있는 경우
- ✓ 음식물 삼킴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 ✓ 이물질을 삼킨 경우



Q 소아도 수면내시경이 가능한가요?

A 10세 이상의 소아는 수면내시경과 비수면내시경 모두 가능합니다.
10세 미만의 소아는 수면내시경 혹은 진정 정도에 따라 전신마취 하 내시경을 시행합니다.
12개월 미만의 소아는 수면 약물의 사용으로 호흡부전의 위험이 성인보다 크기 때문에 비수면내시경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아내시경 전문의에게 검사 받으세요!

02 김은실 교수의 PICK Story

성장장애 일으키는 '소아 염증성 장질환' 치료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 장의 심각한 염증 단계 때 강력한 항염증 치료제인 생물학제제를 미리 사용해서 협착과 수술을 예방하는 **톱다운 전략 (top-down approach)**이 소아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성인보다 증상 심한 '소아 염증성 장질환'의 특징

- 크론병**
 - 소장·대장을 동시에 침범하거나 상부 위장관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더 많다
 - 최대 60%는 항문 누공·농양 같은 항문 증상이 있다
 - 체중 감소가 뚜렷하고 관절통·불명열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 환자의 약 30%는 첫 진단 당시 성장장애가 동반된다
- 궤양성 대장염**
 - 대장 전체를 침범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
 - 발열·관절통·포도막염 등 장외 증상이 더 많이 동반된다

염증성 장질환의 3단계 치료 과정

- 1단계 : 항염증 치료(5-ASA, 스테로이드, 항생제)
- 2단계 : 면역 조절제(아자치오프린, MTX)
- 3단계 : 생물학적제제(인플릭시맵, 아달리무맵)

톱다운 전략은 염증 단계에서 생물학제제를 사용해, 진단 초기에 심한 염증을 조절함으로써 질병의 경과 자체를 바꾸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블로그 클릭](#)



소아청소년과
김은실

진료분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복통, 구토, 변비, 설사, 혈변, 황달, 간염, 소아비만, 성장부진, 영양치료, 소아내시경
진료시간 오전: 월, 수, 목 / 오후: 금
*내시경 클리닉 화요일 오전, 응급내시경 상시 가능
학 력 2021.02 성균관대학교 의학박사 수료
경 력 2019.03 - 2022.02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소화기영양 분야 전임의
수상경력 2021 세계소아소화기영양학회 젊은 연구자상 수상
2020 아시아염증성장질환학회 젊은 연구자상 수상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Quick NEWS

03 강북삼성병원 영아혈관종/혈관기형 클리닉 소개

안녕하세요?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영아혈관종 & 혈관기형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아혈관종은 주로 생후 1-4주에 발견되며, 생후 1-3개월의 빠른 증식기를 거쳐 대부분 생후 5개월까지 증식하고, 그 이후 4~5년에 걸쳐 자연 퇴화합니다. 혈관종이 발견되면 보호자 교육과 함께 월 1회 간격으로 추적 진료 하시고, Life threatening (subglottic, hepatic, profuse bleeding), functional impairment (눈, 코, 입, 귀 혈관종), ulceration, possible disfigurement (2 cm 이상 크기), structural abnormalities (face, lumbar area, perineum, perianal의 large hemangioma) 동반 혈관종 등 고위험군 영아혈관종(10-20%)은 Propranolol 치료 결정이 생후 1개월부터 필요하므로 혈관종 클리닉으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정혜림 드림

* Reference

미국소아과학회(AAP)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Infantile Hemangioma (PEDIATRICS 2019;143(1):e20183475)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학술지

Clinical Experimental Pediatrics(2021년 11월호)
"Update on Infantile Hemangioma" 종설 정혜림 교수 발표



소아청소년과 정혜림

진료분야 소아암, 백혈병, 빈혈, 출혈, 혈관종, 림프절 비대
진료시간 오전 : 월, 수 / 오후 : 화, 목

04 정혜림 교수의 PICK Story

혈관종은 소아에서 가장 흔한 양성종양이고,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혈관종은 자연 퇴화하기 때문에 80-90%는 치료 없이 지켜 볼 수 있으나 생후 5개월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정기 관찰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혈관종의 10-20%는 조기치료가 필요하며, 치료 대상이 되는 고위험군 혈관종은 가장 흔히 발생하는 얼굴을 포함하여 신체 어느 부위나 2cm 이상 크기가거나 눈, 코, 입, 귀, 기도, 간, 요추, 외음부, 항문주위를 침범한 경우, 궤양이나 출혈을 동반한 혈관종으로 생후 1개월부터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추천되는 혈관종의 1차 치료는 소아 혈액종양전문의에 의한 프로프라놀롤 경구 치료를 6개월 이상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혈관종의 진단

표재성 혈관종은 빨간 딸기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약 95%에서 병력과 신체진찰 결과로 진단이 가능하나, 피부로 덮어있는 심재성 혈관종, 침샘이나 간·콩팥·비장 등 내부 장기의 혈관종은 도플러 초음파 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하여 진단이 됩니다.

△ 병력과 신체검진으로 진단하기에 불분명하고 △ 혈관에서 유래하는 악성 종양인 육종과의 감별이 필요하거나 △ 동반된 합병증 또는 증후군이 의심되면 △ 도플러(Doppler) 초음파 검사 △ 컴퓨터단층촬영(CT) △ 자기공명영상(MRI) △ 심장초음파 등 추가적인 검사와 평가가 필요합니다.

혈관종 병변의 크기와 침범 정도 파악에는 도플러 초음파, MRI 같은 영상학적 검사가 가장 유용합니다.

소아 혈관종에 효과적인 '프로프라놀롤' 치료

프로프라놀롤은 유럽·미국에서 일차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아들의 복용 편의를 위해 시럽제제가 출시되었습니다. 강북삼성병원은 2010년부터 큰 부작용이 없는 프로프라놀롤을 이용한 혈관종 치료를 도입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빠른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치료 시작 1개월 후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추적 관찰을 시행합니다. 최고의 효과와 혈관종의 재발 방지를 위해 6개월 이상 프로프라놀롤 치료를 지속하며, 혈관종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증식기가 끝나는 생후 12개월 이후까지 치료하기도 합니다.

블로그 클릭